




2017학년도 제2회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장계중학교-3467(2017.5.22.)	
		위원장	학교장
		김재표	박병영
○ 일시 : 2017. 5. 22.(월) 11:00~ ○ 장소 : 운영위원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전심의 7. 폐회			
○ 의사일정 1. 2017.9.1.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 2. 긴급 알림사항 전달 및 경과보고			
간사	지금부터 2017학년도 제2 학교운영위원회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다음으로 교장선생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안전과 알림사항이 있어서 오늘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 선언과 안전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곧바로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17.9.1.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무부장	담당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2017.9.1.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	교무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전체 교원대상 찬반 회의결과 교원들은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발송 결과 한분의 학부모만이 공모제 찬성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와 현재 우리학교 상황등을 종합 설명하다.		

이은영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모제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장	공모제의 변칙적인 운영상황, 문제야기 사례 등을 이야기하다.
이진*위원	학교장으로서 학교경영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교육철학 투입등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으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형태보다는 개인적인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공모를 희망하는 분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발령의 경우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교장 공모제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인데 공문발송해놓고 일주일만에 공모제 찬성여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사 김**	선생님들이 공모제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일을 하기 싫고, 학생교육을 대충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공모제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열정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우선은 공모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고싶어합니다. 따라서 유연성보다는 강요성을 더욱 띄게되고 여러부분에서 선생님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어찌보면 좋지않은 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위원	정규인사발령 교장선생님이나 공모교장선생님이나 장,단은 있겠으나 같은 자격이라면 임명된 것 보다는 신청한 것이 적극성 측면에서 보면 더 나을 수 있지않을까요?
교무부장	공모제에 응시하는 교장선생님(혹은 교장자격소지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제작하신 교육계획과 성과물, 학교경영에 대한 포부 발표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절대 보편타당적인 인선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찬성, 반대의견을 보고해야하는 시간적 촉박함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앞서 언급했듯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장계중학교 발전을 위해 탁월한 후임교장선생님이 인사발령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차기에는 반드시 미리 공모제를 염두에 두고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은*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진*위원	공모제 반대의견에 대하여 가정통신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아쉬운 마음이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안 “2017.9.1. 교장공모제 찬성반대 의견수렴(안)”은 반대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불 3타>
위원장	다음으로 긴급 알림사항 전달 및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교장	과학담당교사 임미경의 결핵진단 확정과 관련하여 학교내 결핵 관리 지침 및 교육청, 보건소 통보 등 조치현황, 교육실시, 보건소 방문 계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진*위원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을 발송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접촉자 범위파악과 검진계획도 즉시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장	결핵 관리 지침에 의거 엄중하고 성실하게 대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전원 더 이상 의견없음 표시함)	
위원장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2017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긴급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8명)	문재표, 이은영, 이진영, 박봉엽, 팽기, 김순기	
기록자	간사 임진호 (인)	
서명위원	팽기 (인)	  이진영 (인)
붙임 : 위원출석부 1부. 끝.		